

일주 문



신상·원력 출간기념 영풍문고 싸인회 제주 약천사 회주 혜인 스님은 6월 28일 오후 2-4시 영풍문고 종로점에서 <신상><원력>(클리어마인드 펴) 출간 기념 싸인회를 갖는다.



국제문화친선교류 대추전 열어 사단법인 한민족평화포럼 상임의장 법혜 스님은 한·중 수교 16주년을 맞이해 7월 4-8일 '국제문화친선교류 대추전'을 연다. (041)556-7110



故 박경리씨 49세 봉행 평창 월정사 주지 정법 스님은 5월 5일 타계한 소설가 박경리씨의 49세와 유교시집 불경식을 6월 22일 적광전에서 봉행했다.



중앙승가대에 장학금 1억5천만원 서울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6월 12일 중앙승가대학교 총장실에서 총장 종법 스님에게 장학금 1억5000만원을 전달했다.



법회경 견보답품 법문 강릉 성원사 회주 주경 스님은 6월 27일 오전 11시 대구 법왕사 대법당에서 <법회경> 견보답품을 주제로 법문한다. (033)661-5736



네팔불자 체류지원사업 시작 재단법인 광주아시아문화교류재단 이사장 현장 스님은 6월 12일 네팔화가들을 초청, 체류지원사업을 시작했다.



개산 9주년 맞이 동식을 영혼천도법회 강릉 현덕사 주지 현중 스님은 7월 6일 오전 10시 개산 9주년 맞이 동식을 영혼천도법회를 연다. (033) 661-5878

석문사 예적금강 나반존자 점안 법회



청원 석문사(주지 혜진)는 6월 15일 '예적금강 나반존자 점안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법진 스님(대한호국불교 효해종 총무원장), 혜안 스님(전북 영산문화재 18호 이수자)을 비롯한 영산문도회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불교 선진화와 한반도 선진화는不二”

박세일 교수, 한국불교학회서 초청강연

“불교 선진화가 한반도 선진화입니다. 불교 선진화를 이루려면 불교 교육·불교 거버넌스(governance)·재가불자 수행법을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한반도 선진화 전문가 박세일 교수(서울대,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가 6월 19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한국불교학회 초청강연에서 불교 선진화에 관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박 교수 초청강연은 한국불교학회 김선근 신임회장과 대학시절 봉은사 대학생수도원에서 함께 수행한 반연으로 이뤄졌다.

박세일 교수는 “한반도 선진화와 불교의 선진화”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선진화를 위한 철학으로 공동체 자유주의를 전제했다. 그가 말하는 공동체 자유주의는 구성원 모두의 존엄과 자유를 우선시 하는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개인의 자유를 공동체 발전과 조화시키는 입장이다. 불교사상과 일맥상통해 연기적 자유주의로도 해석된다.

박 교수는 “선진불교는 21세기 대한민국에 빛과 광명이 되는 불교다. 오늘을 사는 중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풀어주는 불교”라 설명했다. 그는 선진불교의 요건으로 ▲시대에 걸맞는 시대불교 ▲중생을 위한 중생불교 ▲보살행을 실천하는 실천불교 ▲국제화된 세계불교를 제시했다. 세계불교에 대해 박세일 교수는 “한국 불교만의 장점을 찾고, 일본 등 인접국의 불교 문화를 이해한 뒤 한국과 인접국 불교문화를 융합해 창조한 불교”라 설명했다.

불교 선진화는 어떻게 이뤄야 할까? 박 교수는 교육제도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박세일 교수는 “수행 중심의 수행승과 포교 중심의 법사승으로 승가교육을 나눠야 한다”며, “승가 교육제도 개혁 없이 새로운 불교 리더십은 없고, 새 리더십 없는 새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불교종단과 사찰 조직 운영 원리 등 불교 거버넌스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박 교수는 “승려 분위의 사찰 운영에 재가신도 참여를 확대해 민주화와 참여적 협력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승속간 협치(協治) 구조’라 표현했다. 승속간 협치구조는 수행·교화는 출가자가, 사찰 경영 등은 재가 전문가가 분업하는 형태를 말한다. 그는 승속간 협치구조의 필수요건으로 투명성과 설명력을 강조하고, 승속이 공유하는 비전 공유를 당부했다.

박세일 교수는 “21세기 한반도 선진화에 불교가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불교의 연기적 가치관은 상호의존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적합하다. 분열갈등의 시대는 중도와 원용으로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박세일 교수는 “국가정체성 위기는 불교의 수는 보은(受恩報恩) 사상으로, 사회적 리더십 부재는 언행일치하고 선행후사하는 보현사상에 해답이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한반도 선진화는 불교적으로 불국토 건설을 의미한다. 불국토 건설을 위해 사회구성원 전체가 성성하게 깨어있을 새 수행



법이 필요하다”며 21세기 재가자수행법으로 노동행선(勞働行禪)을 제안했다. 노동행선은 학생은 학생답게, 근로자는 근로자답게 자기 하는 일에 정성과 마음을 다하는 수행법이다. 박세일 교수는 “노동행선은 연기의 소중함과 직업윤리와 노동가치를 체득케 하는 등 불교 및 사회개혁 동력이 된다”고 말했다.

박세일 교수의 강연은 한국불교 선진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에 따른 실천을 과제로 남긴 채 끝났다. 한편 초청강연에 앞서 열린 학회장이·취임식에서 김선근 신임 학회장은 이평래前 한국불교학회 회장에게 공덕패를 전했다.

조동성 기자 setana@buddhapia.com

조계종, 동국대에 장학금 전달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6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총무원장 집무실에서 동국대학교 오영교 총장에게 장학금 1억 원을 전달했다. 김강진 기자

한국전쟁 호국영령 추모 및 은평구민 위한 대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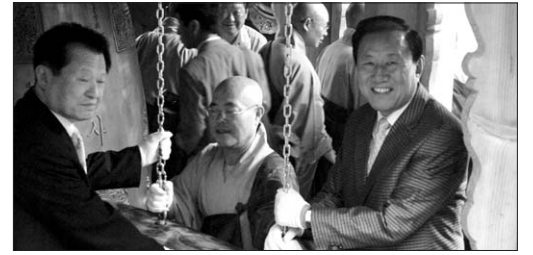
서울 은평구불교사원연합회(회장 성운)와 은평구청불교회(회장 김은혜)는 6월 17일 은평구청대강당에서 ‘한국전쟁 호국영령 추모 및 은평구민을 위한 대법회’를 봉행했다. 김강진 기자

불기협, 춘천 삼문사 등지서 상반기 연수



한국불교기지학회(회장 안직수)는 6월 14-15일 춘천 삼문사 등에서 2008년도 상반기연수를 진행했다. 불기협 전·현직 회원과 가족 등 5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연수는 삼문사 기념법회, 유진규 춘천 마임축제 예술감독 초청강연 등으로 진행됐다. 김강진 기자

무등산 동원사 범종 타종식



광주 무등산 자락 동원사(주지 지각)에서 범종 타종식이 열렸다. 범종식은 대한불교범종종 중정 탄근 스님, 조계종삼학불교 총무원 혜인 스님, 광주불교사무원 정인 스님, 유태평 광주동구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안행선 광주주남지사장

무량종 약사사 명부전 낙성점안



대한불교무량종 공주 약사사(주지 다정)는 6월 15일 명부전 낙성식을 봉행했다. 이날 회에는 무량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혜안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혜안 스님은 “공주지역 불법포교에 매진하여 한국불교 중추기점으로 거듭나자”고 당부했다.

동산불교대학 김재일 이사장 타계

재가불자 교육·신행 앞장서



항상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며 ‘한 날 한 시에 함께 성불하여 등공(騰空)하자’고 발원했던 재가불자신행단체의 큰 별 김재일 이사장이 타계했다. 동산불교대학, 동산반야회를 통해 재가불자 교육과 신행을 이끌어왔던 김 이사장은 6월 18일 오후 12시 서울대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60세.

자고한 김 이사장은 1982년 조계종 산하 재가포교단체 동산반야회를 창립, 타계하기 전까지 포교 일선에서 노력해왔다. 김 이사장은 2년 전, 대장암 투병 중에도 동산불교대학은 물론 동산반야회 및 붓다클럽까지 돌보는 정성을 보였다. 또한 지난 4월에는 동산불교 유럽 지원을 설립하기 위해 직접 독일을 오가는 등

왕성한 활동을 보였다.

김 이사장이 펼친 대표적 불교사업으로는 1984년부터 시작된 일반인들을 위한 불교교리 강좌를 꼽을 수 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김 이사장은 1992년 동산불교대학을 창립했다. 동산불교대학은 불교계 최초 2년 과정 불교교양대학으로 일반인 대상 장기 불교교육과정을 개설한 교육기관이다. 불교학과 1개로 시작한 교과과정이 현재 불교미술·불교한문학·다도학·불교장례문화학·사찰음식문화학·재가불자를 위한 한글불교의식강좌 등 10여개로 늘어나 지금까지 5000여 동문이 배출되는 토대가 됐다. 이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는 듯 김 이사장은 진정한 불자를 기르기 위해 타계하기 직전까지 직접 법사로 나서 회원들을 지도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생전에 항상 “현대사회에서 진정한 불법을 홍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리와 신심이 성숙된 재가자’의 역할이 필요

하다”고 강조해 왔다. 이런 생각을 토대로 김 이사장은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불교운동을 전개, 1998년부터 제6차 전국염불만일회 결사대회를 결성해 지금까지 총 10회 동안 전국 10개 아마타불 성지에서 염불봉사를 봉행했다.

김 이사장의 활동은 해외로도 뻗어나갔다. 한·일 불교 문화교류는 4회를 넘겼고 인도 석가족 개종과 초등학교 학교설립 등에도 노력했다. 독일과 미국 등에는 해외지원을 설립해 현지에서 한국불교를 홍보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김 이사장은 불교복지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서울 성북구 장위1동아미타이집과 석관2동정선초년독서실을 위탁 운영해왔다. 또한 1994년에는 한국불교기아도움기구를 발족, 북한을 비롯한 아프리카·터키 등 세계 난민을 위해서도 지원해왔다.

김 이사장이 해왔던 많은 일들은 이제 남겨진 사람들의 몫이 됐다. 동산불교대학은 “앞으로 안동일 변호사를 이사장으로 추대, 김 이사장의 유지를 받들어 동산의 정신을 지켜나갈 것”이라 밝혔다.

한편 김 이사장은 화장 후, 현재 동산불교대학이 경기도 광주에 건립중인 대아미타사에 모셔질 예정이다. 김강진 기자

영남범음범패 수강생 모집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보존회 사무국에서는 본 보존회 초대이사장이시고 영남범음범패 및 장엄도량의 보유자이신 문구암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판소리, 가곡과 더불어 대한민국 3대 성악곡의 하나인 범패와 전통불교의식을 체계적으로 전승 보존하고 우리전통예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어 종합불교예술로 승화된 부산영산재의 보존과 발전을 위한 저변인구 확대를 통해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수강생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사부대중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교육과정(기본:6개월) 전문반 1년(기본과정 수료자에 한함)
 - * 성적 우수한 스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 *
- 교육과목 : 사물다루는법 / 각종제반의식
- 작 법 무 : 천수바라작법무, 오공양나비작법무
- 국 약 기 : 법고, 태평소, 대금, 단소, (영산회상, 청성곡 등)
- 개 강 일 : 2008년 7월 18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수시모집)
-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 1동 159-1 백화도량 관음사 대강당
- 접수 연락처(사무국) : 051)327-5095 / 010-2314-1279

각종 사찰행사 본사무국으로 문의하시면 전수자 스님을 배정하여 여법하게 집전해 드립니다. (보시금 중 일부는 장학금으로 쓰입니다.)

행자(예비스님)모집

사단법인 부산영산재보존회 영남범음범패 교육대학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전생·빙의

인간 잠재의식 직접 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자기 개선은 물론 타인도 도울 수 있다.

도대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 걸까?

"잠재의식속에 숨겨진 심리적 근원을 밝혀 인간을 변화시키는 최면의 위력"

빙의치유

▶빙의령을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영가와와의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인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재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을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지혜로운 삶을 찾게 한다.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직강 미국 최면전문대학 객원교수 국제 임상최면 전문가(ICTH) 심리상담 전문가,성폭력 가정폭력 상담 전문가 한국최면지도사 협회장 국제최면지리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회심리학회원

대학교평생교육원 최면학 강의 및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에서 생활최면 특강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의 실제, 최면요법 등

현재 접수중

미국최면전문대학과 학술교류 협정 한국최면과학원 대표전화 : 1544-2741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서울 02)582-0737 강남 선릉역3번출구 선릉타워9층 대전 042)222-0737 대서동 사대천역7번출구 청운빌딩2층